



이번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역의 주인"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좌측부터) 폴 전도사, 김대성 목사, 양승훈 목사, 배진 목사, 강영수 목사.



6.25 전쟁 64주년을 기념하는 구국성회가 6월 25일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6.25 전쟁 64주년 구국연합성회 개최돼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6.25 전쟁 64주년을 맞이해 남가주 한인목사회가 한미장로교회에서 개최한 <6.25 상기 제64주년 구국연합성회>는 6.25 노래의 첫 가사가 무색할 정도였다. 행사가 시작된 6월 25일 오전 11시 전체 참석자는 20여 명도 채 되지 않아 남가주 교계 연합 활동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듯 했다.
 이 자리에서 정중윤 회장은 "비록 모인 사람이 적지만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자"고 강조했다. "시련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운영 직전회장은 "우리 민족의 가장 중대한 염원인 통일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이 예배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6.25 정신을 위해, 미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남가주 교계와 목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목사회는 "목사회 가맹점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목사회를 후원하는 한인사업체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목사회원이 목사회가 발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물품을 구매할 시, 일정 퍼센트를 할인해 주는 것이 골자다. 목사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사업체들은 사업이 활성화 되고 목사들은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맹점들은 100달러의 연회비를 내야 하는데 목사회 측은 "목사회원에게 할인된 금액은 연말 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할인혜택을 받는 데에 필요한 목사회원증은 이미 발급이 시작된 상태다.
 김준형 기자

"건강한 청년사역 이렇게 하라"

LA 지역 청년대학부 위한 로드맵 컨퍼런스 열려

"청년이 희망이다!"
 LA 지역 청년사역자들이 <건강한 청년대학부의 성장을 위한 로드맵 컨퍼런스>를 23, 24 양일간 나침반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남가주 지역 청년대학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사역자들이 처음으로 준비한 공식 행사로, 어떤 정치색이나 이벤트성 보여주기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역'에만 집중했다.
 이민교회 내에서 청년대학부는 가장 소외된 사역에 속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어권이 곧 한인교회의 미래"라는 공식에는 이미 암묵적 동기가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권 유스나 영어권 유스도 그 교회 성도들의 자녀이기에 그래도 대우가 나쁘진 않은 편이다. 그러나 청년대학부는 대다수가 유학생이다 보니 교회 입장에서는 "잘 훈련시켜 일 좀 시킬만 하면 떠나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 사역"이라는 주제 아래 이 세미나에는 무려 40여 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

냈다. 대다수가 현재 한인교회에서 청년대학부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이다. 이들은 이를 동안 강의를 듣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사역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또 각종 사례발표를 통해 청년사역의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기간동안 양승훈 목사가 주요 강의를 이끌었다. 양 목사는 청년대학부의 비전, 하우스 다이어그램, 소그룹, 중보기도, 공동 큐티, 제자훈련, 관계전도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했다.
 양 목사는 한국 비재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청년목회자연합 Young 2080 훈련원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번 강의들은 지난 2월 한국 송도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열렸던 '젊은이를 깨운다' 컨퍼런스의 강의 내용 위주로 이뤄졌다.
 이 외에도 권혁빈 목사(알바인온누리교회), 권태산 목사(하나님의꿈의교회),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기교회)가 특강을 맡았다. 권혁빈 목사는 팔로워쉽(Followership)에 대해 강의

했으며 권태산 목사와 송병주 목사는 청년 사역자들의 설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사례 발표는 교회와 캠퍼스 사역, 찬양 사역, 미디어 사역, 말씀 사역 등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특히 이 사례 발표 시간은 UCLA나 SMC, LACC 등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고 활성화 하는 전략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배진 목사(새생명오아시스교회)는 불신자 청년을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존 성도들이 캠퍼스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 교회를 떠난 학생들이 각자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등 다양한 스펙트럼 하에서 발표해 인상적이었다. 캠퍼스에서 이뤄지는 열린 예배, 신입생 환영회, 북을 콘서트 등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또 김상훈 전도사(지저스홀릭)는 EM에도 흡수되지 못하고 KM에도 적용하지 못하는 한국어권 청년들을 위한 대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KBS 방

송국의 PD 출신인 김도일 전도사(세계등대교회)는 미디어 부를 통해 아웃사이드 청년들을 부흥케 하는 비법을 공개했다.
 한편, 이 행사는 김선의 목사(미주서부장로교회)의 파송예배로 마쳤다. 이 자리를 통해 사역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건강한 청년대학부의 부흥을 꿈꾸며 돌아갔다.
 이 컨퍼런스는 LA청년사역자모

임이 주최했다. 이 단체는 2013년 JAMA의 주관 아래 개최된 <청년 사역자를 위한 토탈 리더십 포럼>에서 시작됐다. 이 포럼에 참석했던 사역자들이 LA와 LA동부, OC에서 정기 모임을 구성해 기도하다 자연스레 단체로 발전한 것이다. 현재 LA지역은 배진 목사, LA동부와 OC지역은 송병주 목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복음화 대성회

남가주지역 교회연합

"변하여 새사람되리라" (삼상10:6)

주강사: 총재 이태희목사 / 전미주대표회장 한기홍목사 / 대회장 신승훈목사



성복교회 담임



은혜한인교회 담임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일시: 2014.6.27 ~ 29
 ● 27일(금) 7:30pm ● 28일(토) 6:00am, 7:30pm
 ● 29일(주일) 7:00pm

장소 LA주님의 영광교회

주최: 남가주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신승훈 목사)
 후원: 미주 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 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미주 성서화운동본부

주소: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eb: http://gkc.org
 Tel: 714-392-9470/213-749-4500 Fax: 213-749-6700 E-Mail: info@gkc.org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 “인생은 60부터! 하나님께 주목하자”

2014 봄학기 종강예배 및 학예회 열려



지역사회를 섬기는 실버드림대학이 봄학기를 마무리하며 종강예배를 드리고 있다.

“노인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을 따라 실버드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나성순복음교회가 2014 봄학기 종강예배 및 학예회를 19일(목) 오전 10시에 열었다.

이 교회는 실버드림대학을 통해, 신앙이 없는 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신앙인들은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종강예배에서 “인생 행복의 법칙”(마

태복음 7:12)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진유철 담임목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지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또 “세상이 다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독려하며 설교를 마쳤다.

이날 실버드림상 및 개근상 수여식이 있었으며, 학예회 순서에서는 드라마, 영상, 신문 제작 발표, 간증, 영화 감상문 발표, 시화 작품 소개, 건강댄스(왈츠) 등 학생들이 이번 학기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여 화기에애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실버드림대학에서는 생활영어, 컴퓨터, 건강체조, 노래교실, 바둑교실, 각종 특강이 개설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는다. 이에 더해 점심식사, 교재, 셔틀 버스 운행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2014년 가을학기는 8월 28일(목)부터 11월 20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린다. 등록기간은 8월 10일(주일)부터 8월 17일(주일)까지이며, 60세 이상 배우의 열정이 있는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213-820-9796(서미수 전도사), 213-273-5175(표상호 안수집사)

토마스 맹 기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아”

CCM 가수 서소희 1집 〈주님과 거닐다〉

CCM 가수 서소희가 첫 번째 앨범 〈주님과 거닐다〉로 미주 한인들을 찾아 왔다. 그는 남가주 지역에서 여러 찬양집회와 콘서트로 그 이름을 알렸지만 사실 미주복음방송(GBC)의 아나운서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소희는 김명식, 이정림, 다윗과요나단 등 한국 CCM계의 거목들을 배출한 “찬양하는 사람들”의 멤버로 대학생 시절인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 벌써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사역자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앨범은 첫번째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중견 CCM 사역자의 무게가 느껴진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달려오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버텨온 사람의 절절한 고백이 서소희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실려 있다.

“한 치 앞도 모를 그 인생길 따라 나 걸어 갑니다”, “주님과 거닐 때 나는 회복되고, 주님과 거닐 때 나는 살아나네”, “먼 길을 돌아 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등의 가사들은 특히 우리 이민자들의 아픈 가슴을 통째로 꼬집어내어 토로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현재 아름다운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소희 전도사는 “새신자들을 위한 곡이라기보다는 기존 성도들, 특히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한 곡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모태신앙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서 전도사에게도 위기가 있었다. 아주 잠깐이지만 주님과 멀어졌다 느낄 그 시절, 그는 병원에 누워 주님을 다시 만났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세상과 극도로 대조적인 병실의 조용한 침묵 속에서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란 약속을 하게 됐다.

이번 앨범에는 한국 CCM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참여했다.



“나를 통하여”, “사랑” 등을 작곡한 이권희 씨, “마지막 날에”, “새벽 이슬 같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등을 작곡한 이천 목사가 이 앨범에 함께 했다. 서소희 전도사도 총 9개 곡 중 4곡에 작사 및 작곡으로 참여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 곡이라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렵니다”는 이권희 작곡가의 곡으로 세월호 사건 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쓰여진 곡이라 개인적으로 더욱 애착이 간다고 한다. “나 때문에”란 곡도 서 전도사의 신앙 고백 그 자체이기도 하여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서소희 전도사는 명지대학교와 윌드미선대학교에서 석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아주사대학교에서 신학(M.Div.)을 공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군선교연합회의 찬양간증집회 인도자로 사역했으며 동시에 독수리군인교회와 다수의 교회를 섬기며 성가대를 지휘했다. 미국에서도 여러 한인교회에서 찬양팀 인도자와 성가대 지휘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문의 : 213-864-4192
soplease11@gmail.com
김준형 기자

뜨겁게 찬양하라! 세상을 향해 외쳐라!

원하트미니스트리(One Heart Ministry)가 기획한, CCM 아티스트(문화선교사) 발굴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CCM 루키(ROOKIE) 선발 경연대회 예선이 6월 25일 유튜브를 통해, 28일 KCCC(1636 W. 8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7) 2층 미니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전 세계에 일고 있는 한류 열풍이 증명하듯 음악과 대중문화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때, 자신이 지닌 달란트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문화를 널리 전파할 새로운 시대의 문화선교사를 발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디션 대상은 전문적인 CCM사역에 대한 비전을 지닌 중고등부 청소년과 장년층으로 음악장르나, 연령에 제한이 없다. 기성곡으로 참가도 가능하다.

예선은 6월 25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 오디션을 열며, LA

에서는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2시 KCCC 2층 미니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예선 통과자는 멘토를 배정받은 후 멘토 스킴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은 7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강찬(찬양사역자), 정종원(꿈이있는자유), 박종술(찬양사역자), 랜디 김(프로듀서), 김진수(프로듀서), 브랜던 정, 조영석, 크로스 KC, 이영관, 아브라함 라보리엘(Abraham Laboriel, 베이스 연주자), 저스토 알마리오(Justo Almario, 색소폰 연주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상은 한국 CCM 루키 본선 출전 기회, 한국 왕복 항공권, CCM 루키 USA 기념음반 제작 기회 및 트로피, 상장 및 부상을 받는다. 이외에도 은상, 동상, 작곡상 등 다양한 상이 있다.

이번 행사는 CTSM(부름선교회), 선한정지교회, 동양선교교회, 새생



이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

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HS ENTERTAINMENT,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크리스찬헤럴드, CGN-TV가 후원한다.

참고 웹사이트: colormusicusa.wix.com/ccmrookieusa
이메일: ccmrookie@gmail.com
전화: 323-306-2191, 213-703-7663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 323-735-6365 |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Missional Church 선교적교회세미나LA

Ecclesiology for Mission Based on the Gospel of St. John (r)

INTENSIVE COURSE 집중수업 6th -9th July 2014 6th pm4:00~9:00 7th-9th am8:00~pm7:00

Dr. John Hoi C. Kim
LA President, D.Min. at PTIS, D.Miss at GIS, 서울신대(ABSM)신학교교수, 아가스틴의원·남의도성본석, 선교신학회를, 어머니영성 사도영성회 6년지자

12h) Sunday Eve, Tues PM, Wed AM
1. Missional Church
2. Missional Ecclesiology Based on the St. John's Gospel
3. Ecclesiology of St. Augustine's City of God

Dr. Donald W. Dayton
Chair Professor of STU, Ph. D. at U Chicago, Drew University, Asbury, 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역임,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오순절운동의신학적주류 12편지자

4h) Tuesday AM 8:30-12:00 동역제공 (Rev. Jonathan Y. Chung)
1. Changing Approaches of Modern Church

LA캠퍼스 학위취득과정

학위 (Degree)	학점	수학연한	지원자격
학사과정 (B.Th)	120~128 학점이상	4년	고졸/동등이상
석사과정 (M.Div)	64~90학점이상	3년	대졸/동등이상
박사과정 (D.Min) (D.Miss)	32~48학점이상	2년	M.Div,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동등이상 학력이 인정되지만 원근의 투회경력을 소유한자

Dr. Moses B. Lee
Ph. D. in Intercultural Studies, Th. M., MA at Fuller, President of King's Divinity School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역임

10h) Monday AM 8:00-PM 7:00
1. Biblical Foundation on Mission

Dr. Terrance Curtis
President of SRTCS Former President of Housto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rainer of Personal Evangelism

6h) Wednesday PM 1:15-7:00 동역제공 (Dr. Kyoung J. Kim Ph. D.)
1. A Look at Ecclesiology in today's American Society Trends of the Church in the 21st Century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ell and House Church Movement.

학과 1과목 - 학사\$200, 석사\$250, 박사\$300 청강 디플로마 \$100

남부 개혁 신학대학 및 신대원

Dr. Chang B. Lee
Ph. D in Near Eastern Languages and Cultures & MA at UCLA, Th.M at Fuller, ITS, 에반젤리칼대학교수, Ellis R. Brotzman,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1장배역, 구약본문비평의 이론과실제

3h) Tuesday PM 1:15-4:00
1. Ecclesiology Based on the O.T.

장소 | LA Branch 2975 Wilshire Blvd., #415 Los Angeles, CA 90010
본교 | 4740 - H Dacoma St., Houston, TX 77092
213-219-0649 bostonch@hotmail.com www.srtcs.org

Southern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남부개혁신학대학및신대원
President Dr. Terry Curtis LA Presidenet Dr. John H. Kim

미국 최대 장로교단 PCUSA 동성결혼 주례 합법화

불과 3년 전 '동성애 목사' 허용했는데 이젠 '한 남성 한 여성' 결혼 정의도 변경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PCUSA(미국장로교)가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다. 14일부터 21일까지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제 221차 총회에서 이 안건은 최종 통과됐다. 이제 이 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주례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동성결혼이 불법인 주에서는 주례를 할 수 없다.

총회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목사와 당회가 양심과 믿음에 의해 동성결혼을 주례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개교회가 결의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목사와 당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들은 동성결혼을 주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불과 3년 전, PCUSA에서 동성애 성직자 안수를 허용한 이후 따르던 결과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보수적인 신앙 색채를 가진 이들은 비통해하지만 이들은 소수이며, 전반적으로는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었다. 언론의 보도도 대부분의 기독교 언론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반 언론들은 '박수'를 치고 있다.

19일(목), 371대 238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다"고 승인했다.

'동성결혼 주례'가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교단 규례서(Book of Order)에 있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로 바꾸자는 헌법개정안도 429대 175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경우는 각 노회의 허락을 받아내야만 하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교단 내 LGBT 지지자들은 이번이 통과된 안건을 공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곧바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두 가지 안건이 통과되자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감격하기도 했다. LGBT를 지지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 내 그룹들과 중재를 위한 커버넌트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피츠버그 지역 랜디 부스 목사는 "우리 교회들과 지난 몇 십 년간, 교회 내에 온전히 포함되길 간절히 소망해 온 LGBT 사람들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날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총회 측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 내 보수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를 위한 전국적인 태스크 포스'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교단 내 보수세력들의 반발도 거세다. 미국장로교 중서부한미노회 조은성 총무는 "목사와 당회는 동성결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고 확신할 때,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목사와 당회의 분별력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맞지 않는다고 믿는 결혼식을 위해, 목사가 결혼식을 주례하러가거나 당회가 교회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에틀랜타 지역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 목사 역시 "목사와 당회가 동성애 이성이든 결혼식에 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무조건 동성결혼식을 집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적인 교회와 목사들은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인교회들의 경우 대부분 보수적인 신앙색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에 대한 집례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단 내 장로교평신도위원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런 행동을 매우 애용해 하고 있으며, 모든 장로교인들이 이에 저항하고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조롱 받으실 분이 아니며, 자신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진리와 맞바꾼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여기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했다. 평신도위원회의 카르멘 포울러 씨는 한 인터뷰에서 "결혼의 정의를 바꾸려는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지역을 향해, 아마 헌법개정안의 언어 표현을 미묘하게 바꾸어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두 가지 안건통과에 앞서 몇 시간의 토의시간에서 이를 반대한 보수진영 목회자들은 2011년 5월 동성애 성직자 안수 허용 이후 교단을 떠난 교회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 역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신디 김 기자



미국장로교 총회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 PCUSA 총회

한인교회들

PCUSA의 마지막 희망인가

"한인교회들 신앙양심 지키자" 호소

PCUSA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는 안을 통과, 향후 1년간 각 노회들의 결정에 따라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PCUSA 내의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NCKPC가 한인교회들에 서신을 보내 친동성애에 물결을 막는 최후 보루로서 활동하고 있다.

PCUSA는 이번 총회에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시민계약이다"라는 조항을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시민계약이다"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 향후 1년 간 노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이러한 친동성애적 결정에 미국 친동성애 언론은 이를 연일 대서특필하

고 있다. 그러나 NCKPC는 이 같은 친동성애 언론들의 보도는 과장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PCUSA 교단의 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했다.

한인교회 전국총회장인 유승원 목사는 20일자로 한인교회에 서신을 발송하고 "결혼의 성립과 주례의 재량과 권한은 전적으로 당회와의 협의 아래 가르치고 집례하는 목사에게 있다"면서 "총회의 유권해석은 우리의 양심과 그에 따른 실행이 누구의 재량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한다"면서 한인교회들이 이번 총회 결과에 영향받지 않고 앞으로도 동성애에 대해 신앙양심에 따른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원 기자

"즉각 철회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이하 한기총)가 성명을 통해 PCUSA의 '동성결혼 인정'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성경에 입각하여 동성애는 '죄'이며 극악의 결과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성경의 말씀을 더욱 굳게 지키고, 믿음의 삶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주는 19개이지만 아직 60%가 넘는 다른 주들에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를 범죄화하려는 최악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미국의 교회와 교단이 시류에 편승해 이 같은 결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철저히 성경을 위배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또한, "총회에서 결의한 법안이 내년까지 172개 노회의 개별 다수결 투표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회들이 모두 반대하여 법안이 반드시 부결되도록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전에 총회에서 동성결혼 인정 법안을 철회시키고, 성도들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또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나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것"을 천명했다. 박기성 기자

교단 내 보수층 반발 거세

교단 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장로교인회(Fellowship of Presbyterians)는 "우리는 총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통탄하고 있다.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결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열정과 신념을 타협하는 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본다"며, "교단 내 많은 교회들도 총회의 투표 결과 이후에 교단을 떠나려는 조인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단에 남아 있는 보수 교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교단의 또 다른 결정들에 부딪혀야 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손현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인사: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말까지) - 서부인사: T.213.453.6624 (이리왕마뽀일구)

100%홍삼농축액

100g 소희자가격	\$90	240g 소희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160	2개 구입시 \$370	\$320
3개 구입시 \$210	\$180	3개 구입시 \$555	\$450
4개 구입시 \$23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	-----------	------------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L.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4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

- 2014. 8.18~8.29 - 이스라엘 단기선교(10박11일) \$1,999
- 2014. 9.1~9.6 - 한국 선교지(순교지) 성지순례(5박6일) \$1,799
- 2014. 11.3~11.12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2,599
- 2014. 11.3~11.14 -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개국(11박12일) \$2,899
- 2014. 11.10~11.17 - 터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4. 11.10~11.19 - 터키, 그리스 2개국(9박10일) \$2,599
- 2014. 11.10~11.22 - 터키, 그리스, 로마3개국(12박13일) \$3,199

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세요?

모세의 출애굽의 땅! 예수님의 부활의 땅!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그 땅!

바로 그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과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성령의 땅을 밟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오른쪽 안내와 같이 금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을 참고하시고,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 위와가격은, 5월~7월 등록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수와 합리적인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예수를 통한 온전한 치유”

베델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공동 주최, 50여 선교단체 참여한 ‘한미의료선교대회’



한미의료선교대회가 “예수를 통한 온전한 치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Korean-American Mission Health Council Conference, KAMHC)가 “예수를 통한 온전한 치유(Total Healing, Jesus Healing)”를 주제로 6월 20일(금), 21일(토)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진행됐다.

한미의료선교협회의는 의료선교의 사명을 지닌 전문가, 학생, 의료선교 단체와 치유 및 의료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를 네트워킹하고, 의료선교를 장려하며, 의료선교 및 치유사역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안내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효율적이며 유능한 치유자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회는 베델한인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가 KAMHC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의료선교에 비전과 소명을 지닌 여러 교회, 선교단체, 기독교인

들이 참석해 대화하며 협력하고, 의료선교의 분명한 목적 ‘세계복음화’를 되새겼다.

한기홍 목사는 “이 대회를 통해 여러 의료선교기관들이 서로 각자의 활동을 소개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말하며 “급변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교전략과 전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동시에 모든 사명자들 내면에 선교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KCMEA)의 양유식 회장은 “젊은이들이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 남미, 유럽, 아프리카에도 한인 의료선교회가 결성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의료선교대회가 진행된 이틀 동안 나성영락교회 체육관과 교회 야

외에 SEED선교회(Serving Local Churches, Equipping Missionaries, Evangelizing Nations, Discipling Nations, ‘교회를 섬기며 선교사를 양성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다’의 약자), 지역사회 보건 선교를 전략으로 세운 의료대사선교회(Medical Ambassadors International), 우즈베키스탄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새소망재활재단(New Hope Rehabilitation Foundation), 우물을 통해 미진도종족을 선교하는 물한그릇선교회,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고엽제 피해자 치료를 돕는 통안세계로병원, 헤브론캄보디아의료선교병원,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선교, 구제, 의료, 교육사역을 펼치고 있는 만나선교회(Manna USA) 등 50개 선교단체가 부스를 설치해 사역을 홍보하며 동역의 기회를 제공했다.

주디 한 기자

베테스다대학교 제37회 학위수여식



베테스다대학교가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드렸다.

베테스다대학교가 제 37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를 21일 오전 10시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드리고, 목회학, 성서학, 신학, 음악, 디자인, 유아교육,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서 전 총장 진유철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졸업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밝혔다.

1976년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중앙성경대학이란 이름으로 남가주에 설립한 이 대학은 지금까지 총 1187명

의 동문을 배출했다. 198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후 ABHE로부터 2001년 정회원 자격을 받아내며 미주 한인 기독교 대학교 중 가장 최초로 정식 학위 인가를 획득했다. 이어 TRACS로부터도 2006년 정회원 자격을 획득해 됐다. 현재 캠퍼스는 애너하임에 있으며 한인 신학교로 시작됐지만 현재 영어권 학생의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국제화된 상황이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신임총장 송영준 목사와 공동 이사장 공희 목사가 축사를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제1회 어린이 찬양대회 성황리에 열려



제1회 남가주 어린이 찬양대회 수상자들이 무대에서 인사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과 남가주한인교회를 약회회가 공동주최한 제1회 남가주 어린이 찬양대회가 지난 21일 토요일 나침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총 40여 명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7명이 이 무대에 올랐으며 대상은 선한목자장로교회의 조앤 박 양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금상에 에브리데이 교회의 스테파니 유 양, 은상에 마가 교회의 조셉 황 군,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제니 리 양이 올랐으며, 동상은 오렌지중앙교회의 조셉 리 군, 남가주든든한교회의 에스터 림 양, 터스틴침례

교회의 에스터 리 양이 받았다. 이 대회를 축하하며 뮤지컬 팀인 The Dreamer, KYVC청소년합창단, 갓스이미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 대회는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높은 참가율과 수준 높은 실력으로 큰 도전을 주었다. 특히 “한쪽 눈이 실명되어 가사를 모두 외우고 나왔다”, “교통사고로 다친 할머니를 위해 나왔다”는 등 어린이들의 은혜로운 간증도 많았다.

김나래 기자

레위남성성가단 “하나님 나라 이뤄지도록”



레위남성성가단이 창단 28주년 정기 연주회를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었다.

레위남성성가단 창단 28주년 정기 연주회가 22일 주일 오후 7시에 남가주동신교회(손병렬 목사)에서 열렸다.

손병렬 목사의 개회 말씀 및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에서 레위성가단은

12곡을, 포이에마여성합창단은 2곡을 합창했다.

이날 레위성가단은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 ‘주님을 예배함’, ‘찬 아름다워라’, ‘주의 보혈’ 등을 부르며 28주년을 자축했다.

레위성가단 흥정일 단장은 “앞으로도 저희 단원들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역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를 한 김일신 목사(글로리아로교회)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보물인 예수를 찾았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던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눈물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고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다”며 “바로 그 자리가 레위성가단의 자리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레위성가단은 지난 1986년 1월에 창단한 이래, 수많은 연주회와 찬양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 맹
고문변호사: 정찬용
지사장: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 목적

누가복음 19: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누가복음 19:1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됴리라 5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 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 보거나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과정에 과다 징수하여 자기 몫을 챙겨 치부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증오(憎惡)의 대상이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었으나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들어온 터라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거리로 나갔으나 그는 키가 작아서 이미 예수님 주변을 겹겹이 둘러싼 무리들 때문에 뵙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뵙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행렬의 방향을 살펴 보다가 가시는 쪽 길가에 서있는 뽕나무 가지로 올라가서 그 아래로 지나가실 예수님 뵙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말고 뽕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생면부지조면(生面不知初面)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부르실까 하며 예수님의 신성(神性)에 감동(感動)되었고 더욱이 자기 집에 유(留)하시겠다는 말씀에 서둘러 내려가서 예수님 앞서 자기 집으로 모셔 가는데 못 사람이 수군거리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삭개오를 멸시 폄하하면서 예수님까지 같은 류(類)로 취급하는 듯했습니다.

3. 삭개오의 철저한 회개와 구원

고린도전서 12:3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해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이기 바쁘게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것을 토색(討索)한 것(역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민수기 5:7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20%)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삭개오는 자기에게 피해 입은 사람에게 4배(400%)로 갚겠다 한 것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온전히 용서받기 원하는 간절함이다 그 많은 재산(財産)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선언도 삭개오 자신이 지금까지 도적으로 살아온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아 구원얻기 위한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 율법에는 도적질한 것에 20%만 더 계산해서 갚으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했으나 400%를 갚겠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지난날의 죄책감에 후회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하심으로 그토록 철저했던 삭개오의 회

개는 도적질한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심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롬4:16).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날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 목적이 삭개오를 구원하실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삭개오는 회개시 선언한 대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은 네 배로 갚았으며 돈방식으로 알았던 여리고 세리장직을 즉시 버렸습니다. BIBLE DICTIONARY(바이블 디క్ష너리/성경사전)에 의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서 그곳 감독과 교회를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구제와 봉사를 힘썼기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가이사라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탐욕에 이성을 잃고 도적질하는 괴수같았던 그가 회개한 후 영적 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육신의 본능 따라 세속적 허욕을 채우려 죄악을 일삼고 있었으나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알아보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어 오로지 영적 소망과 성과를 위하여 희생적 헌신과 봉사로 구원성과를 위해 감독으로 목회자로 성직자로 요긴히 쓰임 받았습니.

삭개오와 같이 회개의 열매도 중생(重生)의 변화도, 내세(來世) 소망을 위한 섬김의 열매도 확실해질 때 주님께서 크고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교회당이나 구경하러 또는 예배드리는 모습

을 구경삼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상 누구를 만나는 장소로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 밖의 시각에서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통칭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15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해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교로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에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기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리 정통한 말씀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恩賜)와 영력(靈力)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알 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삭개오와 같이 지금까지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고 성령님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삶의 목적은 영적성과(靈的果實)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임마누엘을 위한 기도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언.행(思.言.行)이 확실히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선교를 위해 복음의 제물되어 한 평생을 희생적 헌신으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훗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WHY DO YOU SACRIFICE YOURSELF TO OBEY WORD OF JESUS CHRIST? BECAUSE HE IS MY LORD THEREFORE I BELIEVE ETERNAL LIFE IN HIM』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정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 기초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학)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i@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o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10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관리집사님 모십니다



주인님께서 함께 동역하시길
관리집사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세례교인, 미국 합법거주자, 운전면허 소지자
교회관리 유경험자

지원서류

이력서, 담임목사 추천서

서류 접수 마감

7월 20일 (당일 도착 :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인사위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www.kccroc.com 714.893.1652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반주자 청빙

자 격 :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신앙 간증문
보내실곳 : info@sunhanchurch.com
문 의 :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무실
626-965-3443

- *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한목자장로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Desire Ave.Rowland Heights CA 91748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김 세 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 있습니다. 콩이 한 번 구르나 좁쌀이 열 번 구르나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콩은 자기가 텅치가 큰 것만 생각하고, 좁쌀은 열 번 구른 것만 생각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때에 위나라 양혜왕(梁惠王)이 한번은 맹자(孟子)에게 잘난 척하면서 애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게,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치리한다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우리 위나라는 오히려 줄어드는지 모르겠네. 자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러자 맹자가 거만한 양혜왕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두 병사가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다가 전세가 기울자 재빨리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한 병사는 오십 보를 도망쳤고, 다른 한 병사는 백 보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십 보를 도망친 병사가 자기보다 더 멀리 백 보를 도망친 병사에게 ‘야! 이 겁쟁이 놈아, 그러고도 네가 병사냐?’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병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혜왕은 단번에 맹자에게 답했습니다. “오십 보를 도망치던, 백 보를 도망치던 그 놈이 그 놈 아닌가? 둘 다 도망자일 뿐이지! 과연 남을 욕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러자 맹자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보기에 왕이나 다른 나라의 왕들이나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입니다. 근본정신이 바뀌지 않는데, 무엇을 한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것 같고, 더 가진 것 같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혼자서만 독아청정한 척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인 정신과 철학을 바꾸어 남을 섬기고 세워주는 삶을 살 때, 그 모습이 정말로 존경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항상 근본이 문제입니다.

약 속



김 지 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약속의 한 형태입니다. 운전자들은 운전시 항상 이 약속을 떠올리며 운전합니다. 시간도 약속입니다. 하루 중 특정한 시기에 숫자를 붙인 것이 시간입니다. 그 특정한 시각에 사람들은 똑같은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숫자를 떠올립니다. 만약 시간을 알려주는 숫자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은 생활 속에 깊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또 다른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약

속을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무언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회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장소라는 약속 하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각기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면 교회생활은 자칫 갈등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상의 많은 영역이 무언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생활은 성경의 기초 하에 이루어진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각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은 약속 위반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약속위반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일도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이 약속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 존재하듯, 교회생활도 약속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생활의 약속을 존중합시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위 선 자



현 순 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곡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검찰의 소환통보에는 종교탄압이라는 억지 핑계를 대며 도망가는 비겁한 위선자이다.

50년대 서울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박태선 장로의 경우도 비슷하다. 당시 전쟁 직후 백성들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불의의 사자라 불리우던 박 장로는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그의 기도로 불치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사회 저명 인사들의 간증들, 그가 기도한 물을 마시면 무슨 병이나 치유된다는 전단지나 신문 광고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몇 년 안에 박태선 전도관이라는 교파가 형성되고 교인수는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났다. 덕소와 소사에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어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해 기업들을 육성했다. 얼마 후 박 씨가 죽자 그 집단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일부 교인들은 죽은 박 씨가 곧 부활한다며 기다리

고, 일부는 신앙촌을 떠나게 된다. 그곳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더욱 슬픈 일은 그 많은 재산은 박 장로의 아들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위선자들은 선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뒤에서는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여자들을 농락하고 불법으로 갈취한 돈을 자녀들에게 넘겨준다.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인 박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이었다. 이런 면에서 사두 바울이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명한 스승을 만나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고 외국어를 잘 구사하고 말과 글에 능숙했다. 또한 예언과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의 신비를 체험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하며 소를 끌고 와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그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자기는 남과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느냐고 꾸짖으며 제사를 못하게 했다.(행 14: 8-18)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위선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를 죄인으로 낮추는 위약자도 있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신나는 공동체가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은 ‘약속’이라는 전제 하에 움직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문자도 약속입니다. 알파벳의 각 문자들은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J’는 한글의 ‘ㅈ’ 발음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글인 한글의 자모음도 고유의 발음 약속을 전제로 사용됩니다. 글을 읽는 독자는 이 무언의 약속을 기억하며 글을 읽는 것입니다.

일상에 사용하는 단어도 약속입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전이란 각 단어에 대해 어떤 정의를 약속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소통을 이룰 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는 이 약속을 떠올리며 대화를 합니다.

법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교통법은 자동차 운행을 ‘우측통행’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로 운행되는 차량들은 반드시 오른쪽 차선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들이 법을 법전이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무시하는 운행방법을 사용한다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어느 곳이나 위선자는 있기 마련이지만 유난히 많은 곳이 정치판이고 또한 종교계통이다. 권력을 등에 업고 천의 얼굴을 가진 거짓 정치꾼들, 또한 자신을 구세주로 자처하며 헌금을 모하게 걸어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 사용하는데 그 끝이 없다.

오늘날 세계의 대표적인 정치적 위선자는 김정인이다. 나이 30에 삼대에 걸쳐 권력을 이어 받아 백성을 잘 살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것을 외면하고 자기는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고 통치자 시절 권력을 휘둘러 기업주들로부터 천문학적 인 돈을 갈취해서 친척들 이름으로 숨겨놓고 자기는 이삼십 만원으로 산다고 허풍을 떠는 위선자도 있다.

또한 깨끗해야 할 종교계의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한국은 구원파의 교주인 유병언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나, 있는 것 다 바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고 속여서 권여벌인 돈으로 100여 개의 기업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의 자녀들은 외국으로 보내, 딸은 불란서에서 호강하고 아들에게는 10여 명의 보디가드가 따라다니고 있다.

그런 그가 이번 엄청난 잠사의 주범으로 도망을 다니니 전 국민들은 분노하고 그동안 헌금을 낸 신자들은 통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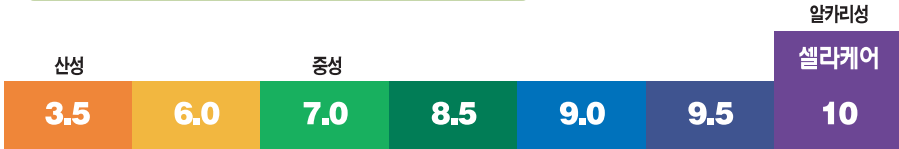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0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213-500-4471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213-258-5321
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복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배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소변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종반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옴.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증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랙(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했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앉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나가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10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양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직접적인 영양을 끼치게 됩니다. 피가 부분적으로 응고 가 되어서 혈관이 어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뼈를 마르게하여 뼈를 약화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연17장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반대로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쁨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잠연 15:30 에도 이렇게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양을 주게 됩니다. 옛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원래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wife 였습니다. 다윗과 결혼하게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전에 사울왕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약 600명 이였습니다. 그렇보니까, 식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같은 동족들에게는 약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의 굶주림보다도 더 큰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도적들이 상당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윗이 그 갈릴사람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음식을 조금 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25장10절과11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고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자를 위하여 집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며 거절을 하게됩니다. 위에서 읽으

신 것과 같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다윗이 누구였는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일에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였으니,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것도 알았지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큰 인물을 왜 절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무엘상15장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곳 갈멜은 사울왕의 지역구 였고, 또한 나발이 포도주에 취하여 큰 실수를 하게 된것이죠. 25장37절과 38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깐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같이 되었다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은 나발이 죽은 후에 자기를 크게 깨우쳐 주고 또한 음식을 제공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을 때를 보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같이 되었다는데, 그것은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거의 멈추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혈액순환이 끊어져서 뒷목이 돌덩이 같을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도 우리는 크고 또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제품을 복용하면 되는데, 그 제품이 바로 기적의 영양제-M3입니다. M3는 Ph test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이고, 시중에서는 그 절반인 5점을 받은 제품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혈액에 관한 병이 있으신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3일이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테인 특수 영양제 M3 정착한 마음으로 권해 드립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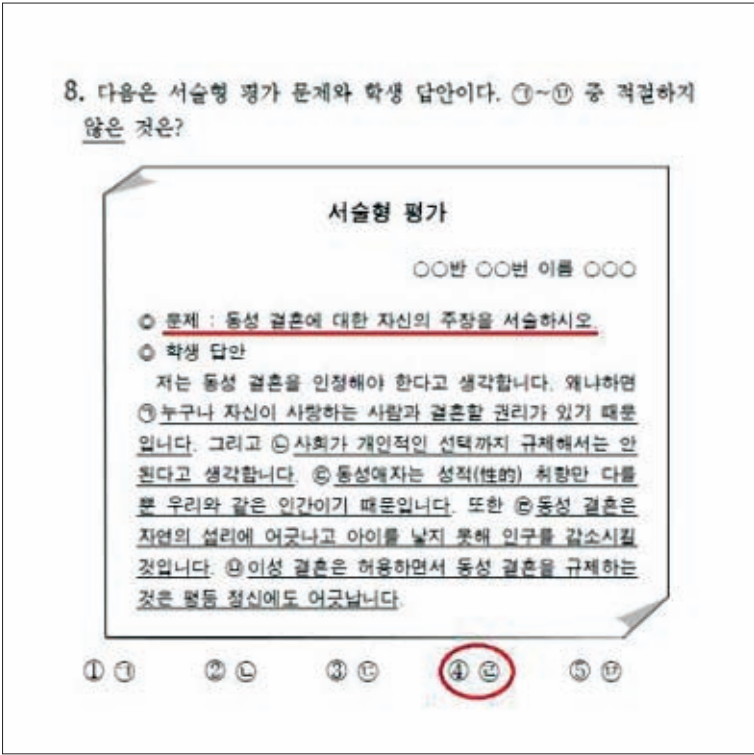
셀라케어 제품은 유테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팔)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201.953.0022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투리스, 캔사스	314.570.9629
예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흥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엠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플랜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954.985.3928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요15:7)

“동성애 인정” 강요하는 고교 시험 문제 파문

‘동성 결혼 반대’는 “부적절하다”가 정답?



한국 고2 학생들의 <생활과 윤리> 시험 문제

지난 6월 12일 전국의 고1·2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과 탐구 영역에서 “동성(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고1 학생 사회과 탐구 <생활과 윤리>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이해하기’라는 의도로 출제된 8번 문제를 보면, 동성 결혼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답으로 찾아내라고 하고 있다.

예시된 문제는,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면서, “㉠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가 개

인적인 선택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동성애는 성적(性的) 취향만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 동성 결혼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아이를 낳지 못해 인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 이성 결혼은 허용하면서 동성 결혼을 규제하는 것은 평등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중에 ㉣의 동성 결혼 반대 입장을 정답(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찾는 것이다.

고2 학년 사회과 탐구 <생활과 윤리> 17번 문항에서도, “성적 소수자들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과 성 정체성이 다를 뿐이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고 ‘틀린 것’은 ‘나쁜 것

이다’라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성적 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을 전통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보기>에서, “ㄱ. 성적 소수자도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 “ㄴ. 다수의 선택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ㄷ. 성 정체성에 따른 개인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ㄹ. 성 정체성은 개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중에 정답을 ㄱ, ㄷ으로 고르고 있다. 즉 ㄴ, ㄹ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동성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 EBS 교육방송에서는 이 시험 문제를 동성애를 조장하는 태도로 해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문제 출제는 부산교육청이 주도한 것이지만, 교과서(비상교육)에 의해 문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교육 현장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에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반대 운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많은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2013년 한국교회연론회 의뢰,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85%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함) 이런 사실을 학교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대웅 기자

구원파의

구원 · 물질 · 종말 · 국가관 알자

이단 사이비 종교 대처 심포지엄에서

한국장로교신학회와 한국성경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가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구원파의 실체와 이단 사이비 종교 대처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여러 발제가 진행된 가운데 특히 주명수 변호사(법무법인 정담 대표 변호사, 밝은교회 담임목사)는 ‘구원파 신드롬’을 제목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주 변호사는 “정통교회에서는 회개를 중요시한다.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모두 중요하다”며 “그러나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구원관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통교회의 교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물질관에 대해서는 “그들은 구원파의 교리를 전파하는 차원에서 회사를 운영한다. 유병언과 구원파는 구원의 계기와 방법으로 헌금을 유도하고, 그 돈이 교주와 그 가족에게 모이게 했다”며 “전형적인 하급 종교의 형태이거나 이단의 수법이다. 유병언은 자신이 10만 신도를 이끄는 선한 지도자라면 당당하게 법정에서 출석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탐욕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변호사는 유병언의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규정하고, “긴감하지 않은 종말론 중 하나”라며 “시한부 종말론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사유화하는 행위다. 주님의 재림을 개인이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도는 신도들로 하여금 평범한 삶을 버리고 유별난 삶을 살도록 부추긴다. 그 결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극단적이고 이단적인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은 건강한 영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관과 관련해 주 변호사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그들의 국가관, 그리고 국법을 대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범죄인을 도피시키고 은닉하는 것을 순교적 행위로 여겼다”며 “법과 국가를 조롱했다. 그들의 예배 초소인 금수원이 마치 치외법권 지역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국가 위에 존재한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로는 국법을 어기겠다는 것이고, 이를 그들은 순교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변호사는 “전 국민들에게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 그 사고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구원파가 끼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며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이 이처럼 많은 역기능을 산출해 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이승구 교수(합동신대)는 “구원파는 기독교의 한 파가 아니고, 아주 잘못된 이단”이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구원파,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의 문제점으로 △ 구원파들이 구원을 얻는 방식과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해, 인격적 회개나 믿음의 결단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 △ 하나님은 개인에 대해 예정하지 않았고, 구원파에 대한 예정을 했다고 하는 것, 따라서 △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한 비밀은 구원파에서 처음 깨달았기에 구원파에 속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들림받는 방식이라는 것과 연관된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가르침, 특히 △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죄 사함을 받으신 후 육신으로 어떻게 생활하든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 예배와 기도를 무시하는 것 △ 교회 공동체의 유기체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조직체로서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종교집단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말하고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 집단이 기독교회의 한 부분이거나 교회인 것은 아니”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날로 멀어져 가는 것이기에 기독교에 속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끝까지 그렇게 하면 참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설교자의 침묵은 직무 유기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교회의 영혼은 설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중요한 설교. 설교의 회복으로 한국교회 회복을 기대하며 2014 미래교회 컨퍼런스가 개막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이 주최하는 올해 미래교회 컨퍼런스는 ‘설교자가 묻고 성서가 답하다’는 주제로 23일부터 26일까지 연세대 신학과 예배실에서 진행됐다.

첫째날 ‘묵은 땅을 기경하라: 21세기에 선포하는 구약성서’를 주제로 발제한 홍국영 교수(연세대)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설교의 위기”라며 설교자들에게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했다.

그는 “돈과 권력이 한국교회의 순수한 영성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세상은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가 뒤덮고 있다. 치열한 경쟁은 생명을 위협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면서 “두려운 것은 한국교회의 쇠퇴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탐욕과 불의와 무책임함과 직무유기이다”며 “한국교회에 더 이상 예언자의 외치는 소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탄했다.

그는 “설교자가 침묵한다면 희망이 없다”며 “이 말에 항변하고픈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저는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또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문제는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의 ‘적실성’”이라며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전 시대 설교자와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데 있다”며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

히 감당하는 일”이라고 설교자로서 직무유기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설교의 ‘적실성’을 표현하며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도 했다. 그는 실례를 들며 “구약성서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는 책은 신명기”라며 “신명기는 언약 사상에 기반을 둔 책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메시지의 근간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언약이다”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신의가 지켜져야 하고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아야 한다”며 이 언약관계에서는 ‘안과적 보응’이 강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보셨는가’라는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대표적인 방법이 신명기의 언약 구도였다”고 했다.

홍 교수는 “고통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이 문제를 판단의 잣대로 적용할 수 있다”며 “그것이 연민의 배후에 숨겨진 정죄의 칼날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그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 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묻는 일화에 서도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신학놀음을 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 앞 못보는 자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는 그의 눈을 어루만지고 실로암에서 씻고 오라고 하신다”고 했다.

주디 한 기자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타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이웃사랑 실천 아시안 암 환우회 사랑 나눔 콘서트



아시안 암 환우회가 주최한 제3회 '사랑 나눔 콘서트'에서 간증하는 임영 집사

암으로 고통 받는 한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암 환우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제3회 사랑 나눔 콘서트가 아시안 암 환우회(대표 손경미 사모)와 리빙투게더 미션(대표 이병일 목사) 주최로 지난 21일, 시애틀 지역 지구촌교회(담임 김성수 목사)에서 열렸다.

암으로 고통 받는 한인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한 이번 콘서트는 한인 학생들로 구성된 앙상블 팀 "All Strings Attached", 시각 장애인 피아니스트 최영호 씨가 아름다운 선율의 실내악과 피아노 연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또 암 환우인 가수 임영 집사도 출연해 아름다운 노래로 환우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북돋았다.

임영 집사는 백혈병, 방광암에 이어 2년 전 입암선 말기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주저함 없이 삶의 의지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한인들이 다시 한 번 꿈과 소망을 갖는 시간을 만들었다.

손경미 사모는 "음악회를 통해 감동과 위로, 치유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 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리빙투게더 이병일 목사는 "암에 걸린 한인들이 대부분 너무나 외롭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며 "사랑은 나누면 커지는 만큼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암 환우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암 환우회는 순수 봉사단체로 시애틀 지역 암 환우 및 가족들이 모여 암 투병 및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정기 모임을 통해 암 환우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 문의 : 425-774-5966

김 브라이언 기자

주예수교회 '제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성료



'제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리치몬드 소재한 주예수교회에서 열렸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제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란 주제로 지난 6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새로 건축된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의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며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인 최형근 교수, 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대학 학장이며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KWMF) 공동의장인 김중국 선교사, 주예수교회 담임이며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인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 장로이며 단기 및 전문인 선교 사역 경험에 풍부한 노승환 장로가 주강사로 참여해, 중·동부 지역에서는 40여 명의 목사, 선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최근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퍼져가고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목회의 실제적 적용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최형근 교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에 관한 연구"라는 두번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해 언급하며,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그리스도인들)를 세상에 파송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 교수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근거한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선교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하고 구속과 화해를 이루는 변화의 대리인임"을 역설했다.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를 주제로 강의한 김중국 선교사는 지난 30년 간의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의 역사 배경과 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통적 교회에서 필요의 한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선교와 달리,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모든 예배, 교육, 교제, 봉사가 지역과 세계를 향한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김 선교사는 21세기 지구촌 선교 동향을 선교학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세미나 참여자들의 시각을 넓혀 주었다.

지역사회 선교와 인종 화합 사역으로 주

목은 주예수교회의 배현찬 목사는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 실제"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디아스포라 이민교회가 타인종에 대한 편견의식을 버리고 지역 주류 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건강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승환 장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담임목사의 분명한 목회 철학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 구성원 모두에게 어떠한 결실로 나타나는지 실제적 사실로 증명함으로써 선교적 교회의 실제적 현상을 제시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이론적으로만 전개되는 다른 세미나들과는 달리, 참석자들이 현재 주예수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만로공원 노숙자 급식선교, Renew Crew 독거노인 및 장애인 주택보수의 현장과 CARITAS 본부를 견학하고, 주예수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숙자 숙식선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35명의 노숙자 여성들과 식사와 교제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실질적인 도전과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날 진행된 질의와 응답 시간에서 리버티신학교 박대중 목사는 "선교적 교회의 철학과 교회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강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직 선교학 교수와 선교사, 이민교회 목사 및 평신도 지도자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는 선교적 교회의 학문적 이론과 목회적 사례의 균형잡힌 강의들이 현재 이민목회 사역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민교회를 준비하는 참석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박은우 목사(위싱턴서머나교회)와 장원호 목사(후레드릭스버그교회)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와 평신도 대표가 함께 강사로 섬기는 것이 특별했다"며 "교회공동체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 아래 한 몸이 되어 있는 모습이 귀감이 된다"고 밝혔다.

제2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는 2016년 5월에 열릴 예정이다.

▷ 주예수교회 홈페이지: www.ljkc.org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입사제배치소: 3119 W. 6th, LA, CA 90020 lcp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중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 말씀 중심 생활 /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에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찬양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s.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거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박승부 장로 1기 2기 3기 4기 수료생 배출, 현재 5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역물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함의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입산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중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예향선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mail: isaacdee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가의정의모습,성경적코노니아,만인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초 정신의 흐름,버튼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볼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대(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주일학교오전11:00 Youth
오전 6:00 (토)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무고,이민2세를책망하며,이민가정까지돌아다니는 선교영광을증명하는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말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안병권**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일요일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나눔 장로교회**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가디나선교회**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주일학교 오후 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2)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코너스톤교회**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재우예배 오전 10:00 **토렌스 조은교회**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최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 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희철**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밸리채플)
특별영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밸리채플)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파사데나장로교회**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십)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분당)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과테말라의 학원 복음화 물결, 뉴욕도 팔 건었다



과테말라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과테말라 공립학교에 성경공부가 허용된 이후 과테말라 전역에 학원 복음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선교 현장의 기적을 돕기 위해 뉴욕 목회자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현재 과테말라 시티의 남서부 교육청에 속한 공립초등학교에는 도덕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는 한 선교사의 오랜 기도와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최근 기적같이 현지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뉴욕교계의 원로인 한재홍 목사와 안창의 목사를 비롯해 김남수 목사, 김수태 목사, 최창섭 목사, 송병기 목사 등 뉴욕의 중진 목회자들은 과테말라 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를 최근 조직한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첫 기도모임을 갖고 각 교회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협력위는 현지 학생들이 배울 성경교재를 지원할 일을 맡았다. 현지의 한 학생이 1년 동안 배울 수 있는 성경교재 한 권의 가격은 50센트로, 1달러면 2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

과테말라 시티에 성경공부가 가능한 공립 초등학교 인원은 총 120만 명 가량으로 이중 현지 선교사의 요청을 받은 협력위는 우선 공립 초등학교 700개교에 약 40만 명의 학생들에게 교재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먼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진행된 기도모임에서 협력위는 뉴욕 지역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범교계적인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1달러면 2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에 비록 개개인이 적은 돈을 내더라도 많은 수가 참여하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평소 중남미 선교에 집중해 왔던 김남

수 목사는 이번 기도모임에서 “과테말라 공립학교가 자진해서 성경공부를 요청한 이번 상황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며 선교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남수 목사는 “공립 초등학교 아이들 40만 명이 변화가 되면 그 아이들이 수 백만 명을 전도할 수 있다”면서 “비록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지만 뉴욕의 교회들이 다 힘을 모은다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남수 목사는 중남미 축구 선교 당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만화책을 제작해 돌렸던 경험과 관련해 “당시 교회는 돈이 없었고 교인들에게 1불씩 내면 10명의 어린이들이 전도 만화를 볼 수 있었다고 했는데 2,3달 만에 8만불이 모였다”면서 “프리미스교회의 사례를 전했다. 이어, “이번 과테말라의 사례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시행할 좋은 기회”라고 참여를 요청했다.

한재홍 목사는 이날 현지의 공립학교 복음화 소식과 함께 현재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경교육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 목사는 “도덕시간에 초등학생들에게 성경교육을 할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용 교재는 60페이지이고 교사용은 200페이지”라면서 “총 6천 명의 교사들이 교육의 대상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에서 교사들이 매우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왔다”고 전했다.

과테말라 공립학교 성경교재 지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은 체크를 61-15 229th Street Bayside, NY 11364(Pay to order: Jae Hong Han)으로 보내면 된다. Online 송금은 075170563(R#026013165) Wilshire Bank로 가능하다.

문의: sknyhan@gmail.com 718-541-0770

김대원 기자

‘노방전도의 힘’ 뉴욕갯세마네교회 예수사랑 초청주일



뉴욕갯세마네교회의 예수사랑 초청주일에 새신자들의 방문으로 예배당이 가득찼다.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가 22일 주일 낮 예배를 예수사랑 초청 주일로 지키고 새로운 신자들을 교회에 초대했다. 이번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주목되는 이유는 뉴욕갯세마네교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후 1시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노방전도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기 때문이다.

뉴욕갯세마네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살전5:17), 서로 섬기는 교회(롬12:5), 예배하는 교회(롬10:8-10), 가르치는 교회(딤후 3:16-17),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고전1:23-25)를 목표로 수평이동을 지양하고 순수 비신자 길거리 전도를 원칙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날 예수사랑 초청주일에 뉴욕제일감리교회 지인식 담임목사와 이정은 사모가 특송을 하는 등 이웃교회와의 협력도 돋보였다. 지인식 목사 내외는 ‘생명의 양식’,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등의 찬양으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영혼에게 분명한 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했다. 예배 중에는 조운주 사모의 ‘Still’ 바디워딩도 선보였다.

이지용 목사는 ‘예수님의 초청’(마 11:28-3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는데 만

남이 중요하다”면서 “부모님과 만남, 스승과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등등 다양한 만남이 있는데 모두가 만나야 할 꼭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강조했다.

또 이지용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초청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만남을 위해 많은 시간 준비를 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고 쉬게 하겠다고 하신다”고 예수님의 초청의 귀함을 전했다.

이지용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삶에 있어 진실한 친구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신다”면서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 번제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이고 고귀한 분이시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치유 받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의 이날 설교는 자신의 간증과 함께 전한 것이어서 새로운 신자들에게 더욱 다가왔다.

김대원 기자

세계 최초의 캐거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Medical Product Name : Mirapharm-22
FDA NDC Number : 58912-2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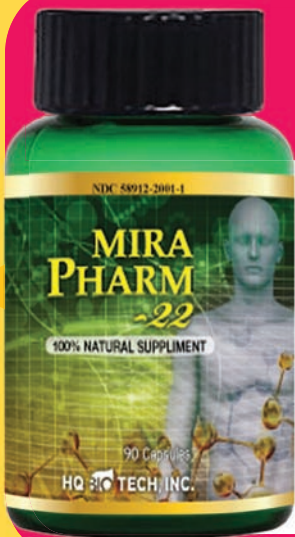
Duns Number : 688502046
Pin Number : cGfFh5Ec

위 정보들은 미국 FDA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들로
제품 제조허가 번호, 제품명, 국제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장 설립허가 번호들입니다.

이와 같이 2013년 6월 12일 미라팜-22는 100% 천연유기물질로써 미FDA 등록 연구소에서 행해진 AOAC 976. 26GC, EPA 200.7, CDFA 1991 PUB, pH테스트, 유기염소의 살충제 & PCBs (안전테스트), 17 중금속, 영양 함유물과 라벨링에 근거하여 식품으로 안전함을 확인 증명 받았으며, 그 이후 2013년 8월 1 일에 미FDA에 일반의약품[NDC (OTC DRUG)]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품 제조허가번호와 공장 설립허가번호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까지 획득해 합법적으로 제조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적의 약(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90캡슐 / 한 달분 / 한 병
Made in USA

미라팜-22의 일반의약품 등록 합법성은 미국 FDA의 아래
사이트를 가셔서 상표명이나 NDC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er/ndc/dsp_searchresult.cfm



미국 FDA NDC 일반의약품 등록 인증서
(FDA NDC REGISTRATION CERTIFICATE)
(아시아 본부 발행)



기능성 식품 안정성 테스트 확인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IRMATION
FOR TEST PARAMETERS)



FDA 확인해보세요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로 검색

22세기형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UNAPPROVED DRUG OTHER란 Marketing Category Name은 승인 안 된 의약품이란 뜻이 아니라 FDA에 이미 등재된 약제
목록에는 없는 신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다른(OTHER) 의약품이란 의미이며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져 FDA에 등록된 의약품입니다.

가정의 달 효도 세일!

미라팜 3병 구입시
HQ구연산 프로모션 중 1가지 선택
소비자 가격 \$400

프로모션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
\$400 \$100

프로모션 B
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
\$380 \$100

프로모션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
\$400 \$100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유기물질이면서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된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로 등록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 NDC(OTC Drug)로 인증 등록된 첨단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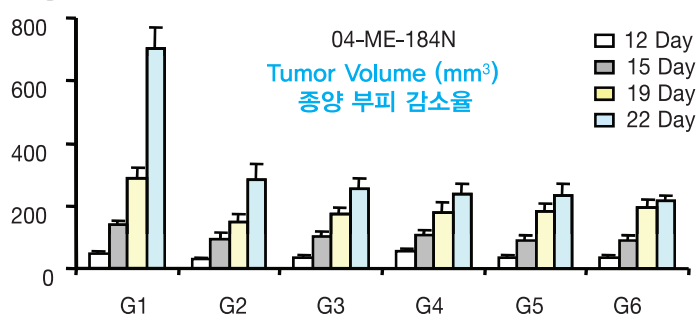
복용 후 5일 - 11/5/2013 복용 후 25일 - 11/25/2013 복용 후 77일 - 1/16/2014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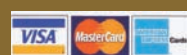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의 FDA 인가된 비임상 테스트를 거쳐 나온 것이며 자세한 데이터(64페이지)를 원하시면 본사를 방문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A. 본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인간, '하나님 형상' 이기에 존엄 법으로 지키자

北 접경지대 '미션홈' 교육 커리큘럼 보완해야

'통일한국과 교회의 역할' 주제로 세미나

한국교회법연구원 창립 10주년 세미나, 김영한·김영훈 박사 발제



'교회법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법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 교회법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 창립 10주년 기념 교회법 세미나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에서 '교회법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세미나, 3부 친교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에선 이효종 장로(한국장로교육원장)의 사회로 정인수 장로(부이사장)가 기도했고, 김순권 목사(이사장)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창 1:26-28)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영훈 원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김순권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 귀한 이유는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누구나 존귀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며 "이 세상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이 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그래서 더 의미 있다. 생명경시사상이 만연한 이 때,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원장은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난 10년의 세월을 달려올 수 있었다. 세상에 여러 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독교 세계관 발전에 있어 연구원의 역할을 더욱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 후 바로 세미나가 이어졌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전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원장)와 김영훈 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교회법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 '교회법연구원 과거 10년의 회고와 장래의 과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먼저 김영한 박사는 "인간 존엄성

사상은 과학·기술주의나 자연주의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종교성, 지성, 감성, 인격, 윤리와 도덕, 고차원의 언어소통성 등을 가리킨다. 이런 성질은 인간 외 다른 어떤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성질"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고찰했다. 김 박사는 "생물학적, 그리고 물리적 차원에서 생명과 죽음, 태어남과 사라짐은 자연계의 순환 과정"이라며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행위 안에서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영적 생명은 물리적 생명을 넘어선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한 그는,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생명을 저버렸지만 한 여성 승무원과 순직한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들의 생명을 잃었다"며 "비록 물리적 생명은 상실했으나, 이들은 영원토록 살게 됐다. 생명이 위협당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생명을 버림으로써, 예수의 가르침을 본능적으로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 생명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영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은 10주년을 맞은 연구원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그는 "한국교회법연구원은 하나님의 법(성경)과 인간의 법(교단 헌법)을 내용으로 하는 교회법의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한국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6월 30일 창립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한국교회법연구원은 그동안 주요사업으로, 교회법 세미나(10회),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9회), 연구발표회(1회), 「신앙생활」 지 발간 및 배포(4회), 교회법 관련 상담, 교회 등 분쟁에 대한 조정자문, 연구원 홈페이지(churchlaw21.net)의 개설과 관리 등을 실시해 왔다. 김 원장은 "한국교회의 신성과 질서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지난 10년간 최선을 다해 왔다"며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다사다난한 상황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 10주년을 맞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며, 후원교회와 이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원장은 한국교회법연구원의 장래 과제에 대해 ▲연구 영역의 확대 및 활성화 ▲교회법 세미나의 효율화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의 수강자 확대 ▲현안 문제 연구발표회의 활성화 ▲교회 등의 분쟁에 대한 조정자문위원회 운영 ▲교회 내 갈등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비전 제시 ▲교회법과 정당한 국가법 준수를 위한 운동 전개 ▲연구원 홈페이지의 활성화 ▲연구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등 재정 확보 등을 꼽았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미래연구원(원장 최병규 박사, CFI)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통일한국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원 이래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기독교미래연구원과 에스더기도운동, 통일소망선교회가 공동주최했다.

개회기도는 안희환 목사(기독교심크랭크 대표, CFI 운영위원장), 개회사는 최병규 박사(CFI 원장), 축사는 유관지 목사(한국기독교통일포럼 상임대표), 격려사는 강승빈 선교사(전 중동선교회 대표, CFI 고문)가 했다.

원장 최병규 박사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첫째로 교회가 남북 통일을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이고, 두 번째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적·교리적·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애를 써야겠다고 생각해서이다. 통일과 북한 선교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강사로 나선 이희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독일의 통일운동과 비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통일 전략과 실천적 통일 운동'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근래의 '한국교회의 통일 전략과 실천적 통일 운동'으로 ▲탈북민 구출/양육/파송/대북송금 ▲북한 바로 알기 교육(북한선교학교, 통일 컨퍼런스 및 세미나) ▲북한구원 금식기도운동(주 한 끼 금식 운동) ▲통일광장기도 ▲통일 헌신자 양성(심신클럽, 통일선교사) ▲통일 세대 육성(청년비전아카데미) 등을 소개했다.

'탈북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의 실제적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통일 선교사로 훈련시켜 통일 후 북한선교사로 파견"이라고 했다. 또 "남한 탈북민 가운데 70~80%가 북한에 송금을 하는데, 송금액이 늘어나면서 장마당과 지하경제가 확대됐고,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붕괴시키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실제적 통일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 바로 알기 교육과 관련 "서울의 영락교회나 부산의 수영로교회 등은 연 한 주간을 북한선교주간으로 정해 북한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교인들의 마음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이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일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양성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 북한/통일연구기관들을 세우고 구체적인 통일 프로젝트들이 시행돼야 한다. 기독교적 통일연구를 위한 기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병규 박사는 '북한 성도들을 위한 성경, 교리 및 신학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우선 최 박사는 "다수의 탈북 성도들은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게다가 접경지대에는 이미 한국의 이단들도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북으로 돌아가 이미 이단 교리를 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어온 그로부터 신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북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오용하여 이단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박사는 "탈북 성도들과의 인터뷰 및 설문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접경지대의 미션홈에서 교육받은 성도들의 성경·교리 및 신학 지식의 수준은 대동소이했다. 성경 전반에 대한 지식의 부족, 교리 및 신학적 이해 부족(삼위일체론에 대한 양태론적 견해 지배적, 사후 내세에서 될 일들에 대해 피상적 이해)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의 교육 기간 및 학습자들의 이해능력의 부족 등의 문제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선교사, 목사, 교수)의 강의 내용 등 커리큘럼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성도들 및 지도자들의 성경·교리 및 신학적 지식의 보완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로 ▲접경지대 미션홈(Mission Home)들의 커리큘럼을 보완할 것 ▲미션홈은 '북한 성도들을 위한 교육 교재' 선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하며, 각 교단들은 '북한 성도들을 위한 교육 교재'를 개발해야 할 것 ▲대북 송출 방송에 '교리 및 신학강좌' 프로그램이 제작 송출돼야 할 것 ▲프로이름이 제작 송출돼야 할 것 ▲북한 지역 성도들을 위해 수준 높은 성경학교와 신학교를 세울 것 등을 제시했다. 그 중 '접경지대 미션홈의 커리큘럼'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과 '이단 사상 비판'도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 박사는 "교단연합체들은 미션홈들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들이 미션홈들을 적극 후원하도록 알려야 한다. 나아가 각 교단 및 교단연합체들은 미션홈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성경, 교리와 신학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단 산하 교육원 내에 '북한주민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팀'을 신설하여 교육교재들을 제작하고, 미션홈들과 북한 내부 그루터기 및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윤 기자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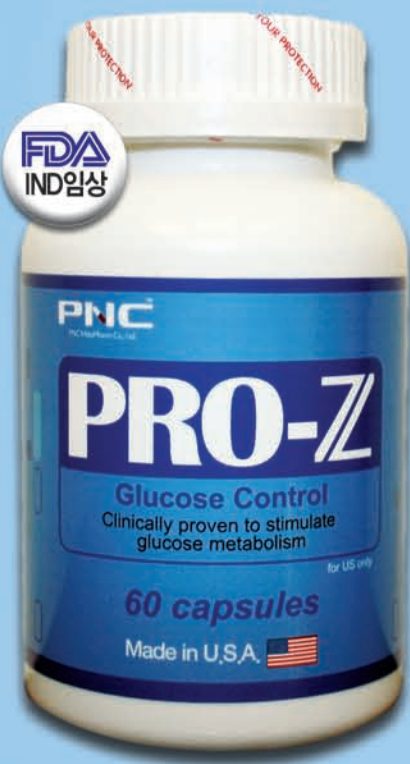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 한국 30만명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3병 \$200 6병 \$372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했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을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을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고,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인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을 복원하고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아연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지는 소의 전립선 추출물(CHP)과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연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FDA 신약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으며(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 조만간 만족스러운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또,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승원 박사의 신학 칼럼>

<특별 기고>

하나님의 성호와 그 밖의 호칭들(6)

동성애는 과연 품어야 하는가?

I. 들어가는 말
II. 구약에서

1.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
 1). 하나님의 이름은 야웨(יהוה)
 2). 문제점들
 3). 야웨인가 여호와인가?
 4). 야웨의 뜻
 (1). 존재자 및 창조자
 (2). 유일하신 하나님
 위에서 “야웨”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예들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야웨”란 명칭이 천하에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쓰인 예가 없지 않다. 사37:20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우리 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그러나 여기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소서”에서 “여호와”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뜻한다면 이 말은 별 의미 없는 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야웨”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시리아 왕 산살렘이 사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한 말인데, 이에 앞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 두 구절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야웨”란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신관이 확립되어 “야웨”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들과의 구별을 위해 쓰일 필요가 없어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웨”란 단어가 이와 유사한 뜻으로 사용된 예를 사45:6,18; 욥1:14; 느9: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14:9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말이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처럼 쓰였다.

5) “에호에 아쉐르 에호에”에 대한 또 다른 견해
 그런가 하면 “에호에 아쉐르 에호에”가 히브리어의 관용구로서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말라” 또는 “네 할 일이나 하라”라는 뜻으로 하셨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에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출3:14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호에 아쉐르 에호에”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모세에게 “에호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하신 말씀의 뜻은 “나에게 네 일이나 하라”는 분이 나를 보내셨다 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으며, 그런 말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셨을 리는 더욱 없을 것이다.

6)야웨의 약칭
 (1) 야(יְהוָה) 혹은 יה
 이 두 말은 “야웨”의 약칭으로써 성경에 50회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히 사용하는 “할렐루야”(הלללו)의 경우인데, 이것은 복수 2인칭에 대한 명령형으로서 그 뜻은 “(너희들은) 야웨(하나님)를 찬양하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는 “할렐루”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

(2) 야후(יְהוּ) , 에호(יְהוּ) , 요(יְהוּ) 혹은 י
 이 두 말 역시 “야웨”의 약칭인데 주로 합성명사 특히 사람의 이름에 자주 나타난다. “야후”의 경우 한 예로 “엘리아”를 들 수 있는데, 엘리아의 히브리스식 발음은 엘리야후(יְהוּאֵל)이고 그 뜻은 “내 하나님은 야 즉 야웨이다”이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히브리스식 이름은 예사야후(יְהוּשָׁא)인데, 그 뜻은 “야웨는 나의 구원이다”이다. “에호”의 경우는 여호수아의 히브리스식 발음인 예호수아(יְהוּשׁוּ)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뜻은 “야웨는 구원이다”이다.

그리고 “에호”를 더욱 줄이면 “요”가 되는데 이런 예는 “요나담,” “요나단,” 그리고 “요람”의 경우에서 나타난다. 요나담과 요나단의 경우 그 원래의 이름은 “에호나담”(יְהוּנָדָם)과 “에호나단”(יְהוּנָדָן)인데 줄여서 요나담(יְהוּנָדָם)과 요나단(יְהוּנָדָן)이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요람의 경우는 “에호람”(יְהוּרָם)이 줄어져서 “요람”(יְהוּרָם)이 되었다. 여기에서 “요나담”의 뜻은 “여호와와 고귀하시다” 또는 “여호와와 독촉하신다”이고, “요나단”은 “여호와와 주셨다” 그리고 “요람”은 “여호와와 높이심을 입으셨다”이다.

지난 6월 7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가 14번째를 맞이했는데,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에 1천 명 정도가 참가했고, 그중에는 많은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구경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리에서 4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제가 세월호 사건으로 침울해진 가운데서도 주위의 이목을 끌자 미국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관심을 표방하는 글들이 다시금 게재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2010년 10월 28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동성애자들의 군복무가 정식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 Mark Leno가 상정한 SB48법안이 2011년 7월 14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통과되었고, 이제 캘리포니아 예선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역사, 과학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의 Life Style이 바람직하다고 표현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이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으로 판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개정안 8조(Proposition 8)를 해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정안 8조는 2008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조항입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13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는 약 3500만 명으로 미국 50개 주의 3억1천만 명 인구의 10%를 넘는 가장 큰 주이고, 그만큼 영향력도 큰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이제 동성결혼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인권과 성향으로 다루면서 “동성애는 유전이다”라고 하고 그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고 후천적이다. 성향이 아니다.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의 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 시대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Homosexuality and the Politics of Truth”를 쓴 Santinover Jeffrey라는 미국 의사는 이 책에서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고 치료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그가 기술한 3가지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성애자들도 치유가 가능하다

이 책 p186-187에 보면, A. Freud라는 의사가 8명의 동성애자 중에 50%를 치유해서 이성애자로 만들었고, Ovesey라는 의사는 3명 전원을 치료했고, Schwartz란 의사는 54명 중에 65%를 치유했습니다.

Mayerson은 19명 중에 47%, Bieber는 106명 중 27%, Ellis는 28명 중 64%, Ross는 15명 중 73%, Monroe는 7명 중 57%를 치료했고, Van den Aardweg란 의사는 101명 중 65%를 치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의사들이 341명 중에 52%를 치료했습니다.

2. 동성애자들의 자기파괴적 실상

동성애에 관해 이 책 p50-52에 보면 1)정상적인 결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평균 수명이 25-30년 감소된다, 3)고질적, 잠재적, 종종 간염(hepatitis) 발병율이 높다, 4)치명적 직장암의 발병 가능성과 폐렴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 5)AIDS, 내출혈 등의 질병과 6)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 장애, 7)자살율이 보통 사람보다 심각하게 높다고 지적합니다.

3.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생활 상태 비교

이 책 p54에 보면, 이성애자는 일부일체제가 83%인데 비해 동성애자는 2% 이하이고, 지난 1년간의 파트너 비율은 이성애자는 1.2명인데 비해, 동성애자는 8명이었습니다. 평생 성 파트너의 비율은 이성애자는 4명인데, 동성애자는 50명이 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므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결코 성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왼손잡이를 아무리 오른손잡이로 고치려 해도 안되는 것을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쳐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성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Santinover Jeffrey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치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다. 이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인권보호입니다.

혹자는 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주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동성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이 동성애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불로 멸망했음을 알고 이 땅에서 동성애가 더 이상 만연해지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18:22, 20:13이나 열왕기상14:24, 로마서1:26-27에서 동성애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질서(창세기2:24-25,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를 어기는 죄악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인정한다고 다 정의로운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법이어야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미 동성애가 다수의 문화가 되어버린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캘리포니아에 회복되도록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는 이 땅의 모든 공립학교에 하나님의 정의가 서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정의를 이뤄 나가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손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동성애자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모르게 안고 있는 고통과 갈등과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분명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캘리포니아에 계시다면 그들을 위한 상담소를 열어 놓으시고 그들을 품에 안고 함께 눈물 흘리며 치유의 손을 얹어 행복한 새 삶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날 때, 진정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 콧물빼기 시범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체험사례1 : 9세 여아

이 환자는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다.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 여대생

오랜 시간 비염과 코 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로,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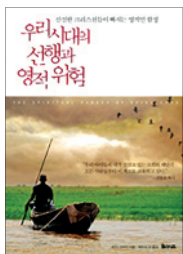


신간추천

우리 시대의 선행과 영적 위험

피터 그리어 | 올리시즈 | 3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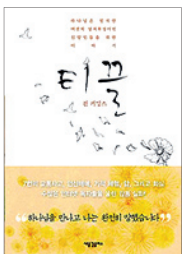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빠질 수 있는 '공로신앙'이라는 영적 함정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때 그 자부심이 도리어 목을 조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던지면서, 하나님을 위한 선량한 일들을 하는 와중에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티끌

진 커밍스 | 새물결플러스 | 2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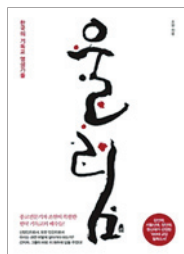
7번의 교통사고, 성폭행, 인신매매, 천국체형, 암 등 갖은 고난을 모두 겪고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자의 간증집. 치부와도 같은 어두운 과거를 밝히는 이유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울림

조현 | 휴 | 332쪽

한겨레 종교전문기자인 저자가 소개하는 '한국적인 기독교 영성가들'이다. '강아지 똥'의 동화작가 권정생을 비롯, '바보의사' 장기려, 부흥사 김익두,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 '성서조선' 김교신, 오산학교 설립자 이승훈,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등과 함께, 변선환, 김재준 등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다루고 있다.



공부 논쟁

김대식, 김두식 | 참비 | 288쪽

'괴짜 물리학자와 뼈딱한 법학자 형제'가 쓴 공부 이야기.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공허한 '공부 논쟁'에서 벗어나, '진짜 공부'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문·이과의 학문과 정치적 입장 등의 차이에도, 현장에서 각자 경험한 한국 사회의 공부와 함께, 공부를 둘러싼 여러 제도에 거침없이 돌직구를 던진다.



REVIEW

오웬의 '선교선(船)'은 어떻게 탄생되었나 <로고스 스토리>

<로고스호프 이야기>가 최근 한국에 입항한 오웬선교회의 최신 선교선(船) 로고스호프에 승선한 이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다면, <로고스 스토리>는 로고스호프에 앞서 사역했던 최초의 선교선 '로고스' 호의 사역에 대해 들려주고 있다.

저자인 일레인 로튼(Elaine Rhoton) 선교사는 휘튼칼리지에서 만난 데일 로튼과 결혼하면서 오웬에 동역하게 됐다. 남편인 데일은 1957년 조지 버워(George Verwer)와 함께 떠난 멕시코 선교여행을 계기로 오웬선교회를 창립했다. 그는 1960년대 초 중동과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사역을 개척했으며, 1978년부터 부부가 함께 선교선 사역에 나섰다.

<로고스호프 이야기>에서 간략하게 다뤘던, 오웬의 선교선 사역 계기를 <로고스 스토리>에서는 자세히 설명한다. 1963년 가을부터 오

웬은 인도에 사역팀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운송 수단은 늘 문제가 됐다. 재정 문제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기에, 다른 수단을 생각해야 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낡고 오래된 트럭에 가득 짐을 실은 채, 눈 덮인 길은 산골과 황량한 곳을 가로질러 무려 두 달간 육로로 대륙을 횡단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 두 달간 이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죽이기에 지나지 않았고, 조지 버워는 찬찬히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배를 이용하자고 제안한다. 지금이야 로고스·돌로스에 이어 로고스호프까지 사역이 이어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선교선'은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뜻 맞는 이들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특히

항해사와 전문 선원들의 동역으로 일이 구체화되면서, 배를 타고 다니며 기록 서적을 전하는 오웬 사역에 적합한 배를 찾기 시작한다. "우선 장거리를 운항하는 선박이어야 했고, 연료나 물을 보충하기 위해 항해를 자주 중단하지 않고도 긴 여정을 소화할 수 있어야 했다. 또 300명이 들어갈 만한 집회 장소가 있어야 했다. 게다가 작은 서점과 창고, 차량을 정비할 작업장, 최소 120명의 선원과 사역자들이 머물 숙박시설까지 갖춰야 했다."

무엇보다도 그 배는 당시 책정된 최대 금액인 8만 파운드(약 20만 달러)의 예산으로 구입 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배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적당한 배가 나타나면 이미 계약이 끝나 있었고, 그들에게 배를 넘기려는 이들도 거의 없었다. 선교선은 1970년 가을이 되어야 겨우 구할 수 있었다. 이미 나이지



로고스 스토리 일레인 로튼 | 좋은씨앗 | 280쪽

리아의 한 구매자와 계약이 끝났던 스칸디나비아 조선소의 '우마나(Umanak) 호'가 다시 매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모금액은 4만 5천 파운드. 한 달 만에 2만 5천 파운드를 더 구해야 했다. 기도하고 노력한 후 계약을 위해 선주의 사무실에 도착하니, 모금 계좌에 계약금보다 1천 달러 많은 금액이 입금돼 있었다.

배의 이름은 가장 많은 이들이 적어낸 '로고스(Logos)'로 정했다. 배를 수리하고 훈련을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71년 2월 18일 로고스 호는 자체 동력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떠나 영국으로 첫 항해를 떠나게 됐다. 6년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던 영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로고스 호는 큰 힘을 전해줬다.

그리고 2월 26일, 본래 목적이었던 인도로 향하는 첫 여정이 시작됐다. 두 달 보름 만인 5월 12일, 동이 트기 시작하자 인도 남서부 항구도시 코친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사역자들은 어느 때보다 기뻐했다. 그곳에서 로고스 호는 '기적의 배(The miracle ship)'라 불리며 수천 명의 방문객들을 불러 모았다.

책에는 이어진 여러 사역들과 함께 로고스 호가 퇴역하기까지의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 있다.

이대용 기자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공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특별 좌담회

신앙 지키면서도 다원주의 사회 속 ‘공존’은 가능할까



광장에 선 기독교
미로슬라브 볼프 | IVP | 240쪽

‘공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광장에 선 기독교>를 통해 본 우리 사회’ 특별 좌담회가 12일 오후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지하소강당에서 개최됐다.

IVP와 기윤실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좌담회는 최근 출간된 미로슬라브 볼프 美 예일대 교수의 <광장에 선 기독교: 공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A Public Faith)>를 통해 6·4 지방선거와 세월호 참사 등 우리 시대 주요 이슈에 관한 기독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서는 이강일 소장(IVF 복음주의연구소)의 사회로 남오성 목사(일산은혜교회 청년부), 박치현 강사(건국대 사회학),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과) 등이 패널로 나섰다.

<광장에 선 기독교>는 다양한 종교와 신념이 공적 영역에서 충돌하는 현실에서, ‘신앙인들이 절대적 신앙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공동선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또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인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크

로아티아 출신으로 지난 1990년대 유고 연방의 분리 독립 과정에서 종교 차이로 인한 동족 간의 무자비한 ‘인종 청소’를 겪었다. 동족의 울부짖음과 믿음소리에 쫓겨 시작한 그의 연구는, 상호 배제의 문명이 타자의 포용을 통해 궁극적 화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명저 <배제와 포용 (Exclusion and Embrace)>을 탄생시켰다. ‘오늘의 종교 사상을 형성한 20세기의 고전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으며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 작품은 특히 ‘정체성(identity)’과 ‘타자성(otherness)’의 문제를 탐구하면서 새로운 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폴리신학회를 거쳐 독일 튀빙겐대에서 위르겐 몰트만 교수의 지도를 받았으며, 현재 예일대 ‘신앙과 문화 연구소(Yale Center for Faith and Culture)’를 설립하고 소장으로서 종교와 인류 공영의 문제, 화해, 직업과 영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자신의 민족적 경험을 바탕으로, 9·11 이후 미국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크리스천-무슬림 간의 대화를 주도하고, 세계 경제포럼(WEF) 글로벌 아젠다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강일 소장, 남오성 목사, 박치현 강사, 이국운 교수.

이강일 소장은 “그동안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 양쪽에 대해 고민해 왔는데, 책에서 ‘공적 신앙’이라는 표현을 발견하면서 이 둘이 하나로 붙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종교가 빠진 공적 영역은 현재 넘쳐나는 세속주의가 점령해 버렸다”며 “저자는 특정 종교에 의한 전체주의나 세속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기독교가 세속화되지 않으면서도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국운 교수는 “세속적 과학주의

가 시대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저자는 ‘온건한 과학주의’의 언어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다”며 “기독교가 심층이라는 깊은 곳에서 공적 참여를 통해 구체적 삶의 현장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치현 강사는 “한국교회는 전도와 선교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직접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소통해 왔는데, 저자는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살을 경험한 데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이러한 접근은 질곡과 고난이 많았던 한국 사회에서도 유의미하다”고 했다.

남오성 목사는 “저자가 믿지 않는 이들과도 소통 가능한 언어로 현실적이고 선교적인 이야기들을 잘 다루고 있지만, 미국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우리에게 한계를 다가올 수 있다”며 “기독교는 예언자적 종교임을 단언하고 있는 이 책은 ‘공적 신앙’과 관련한 기본기를 잘 닦을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대웅 기자

낙도 선교 40년, 하나님의 이웃을 찾아가는 이야기 <등대호에 복음을 신고>

우리나라의 전체 3천여 개 섬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약 430여 곳이며, 이들 유인도(有人島) 중 절반 정도에는 교회가 없다. 그리고 유인도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살기 힘들고, 남은 이들은 고령화됐기 때문이다. 교회가 있다 해도 출석자가 많아 10여 명이고, 시설은 매우 낙후돼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낙도선교회’가 있다. 이들의 낙도 선교는 1974년 총신대학교를 다니던 신학생 3명이 대학 건물 앞에서 “교회가 없는 섬으로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자”고 외침으로써 시작됐다. 부르심에 응답한 30여 명이 그해 처음으로 떠났고, 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듬해에는 100명, 그 다음 해에는 200명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

지금도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씩, 방학이 다가오면 신학생들은 “섬으로 가자”고 외친다. 평균 35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섬을 찾아 들어간다. 교회를 섬기는 신학생일 경우 교회 청년들을 데려가면서,



등대호에 복음을 신고
낙도선교회 | 더드림 | 268쪽

2,500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섬보다 더 섬 같은’, 강원도 산골도 찾아가는. 총신대뿐 아니라 칼빈대, 서울신대, 아신대, 고신대, 서울대, 한동대 등 참여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낙도선교회 사역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선교운동”이라며 “대학생 선교운동은 영국과 미국에서 있었지만,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교한 일은 역사적으로 드물다”고 말한다. 낙도선교회는 단기선교 뿐 아니라 ‘섬 사역자’도 배출하고 있으며, 선박

을 구입해 사역자들을 파견하고 섬 주민들을 돕는 일들도 수행하고 있다.

<등대호에 복음을 신고>는 40주년을 맞은 낙도선교회의 복음전도 이야기 기간 취지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접하지 못한 낙도와 오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됐고, 특히 낙도나 오지 사역자들을 도시 목회에서 실패한 사람 또는 실력이 없는 목회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이었다”며 “낙도·오지 선교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소명감으로 책을 썼다”고 전했다.

책에는 마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듯 생생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외침이 이제 도심에서는 ‘꿀벌집’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참된 ‘복음전도’가 무엇인지를 되새길 수 있는 현장들을 만날 수 있다. 섬에 도착한 이들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섬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섬 주민들은 그런 그

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전도사가 믿는 예수, 내도 믿으면 안 되느냐”고 묻는다.

물론 낙도나 오지 두메산골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인구 수도 너덧백에 안 돼 외롭다. 주민들조차 섬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수지타산을 따져 되는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사역자도 괴롭다. 목회자가 재충전할 길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혜택도 주지 못한다. 오직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런 섬에 들어가겠다고 나서 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하지만, 섬으

로 가겠다는 목회자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 비단 그들만 새겨 들을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섬으로 들어가자 마십시오. 거기는 교회 성장도, 프로그램도, 제자훈련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해선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가지 마십시오. 손들고 1년 만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가십시오. 낙도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 통증없이 신속, 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임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해당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당세포의 기능을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금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자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금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잘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찐빵 고기만두 김치만두
야채만두 물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美 목회자들, 사역으로 인한 탈진과 스트레스 심각

재충전 시간 필요, 책임 맡기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미국교회에서 사역으로 인한 목회자들의 탈진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사역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셰퍼드교회리더십개발연구소(Schaeffer Institute of Church Leadership Development)는 “목회적 피로” 때문에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답한 목회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3/4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50%가 대부분 5년 이내 실제로 사역을 그만두었다”고 전했다.

시티즌타임스(Citizen Times)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 사역을 살펴보고 있다.

목회 사역에는 주일예배 설교 준비뿐 아니라 하루종일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수많은 경영적 책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목회를 배울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스커버넌트장로교회(Grac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에서 사역했던 빌 부캐넌(Bill Buchanan) 목사는 타임스(Times)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은 이 같은 사역의 절반도 배

우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 해석, 신학,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 배운다. 그러나 사역 환경과 교회는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를 떠나 애슈빌청년사역(Ashville Youth Mission)을 시작한 부캐넌 목사는 “이러한 모든 기대는 정당하다. 그러나 한 목회자 혼자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의 많은 연구 결과들 또한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700명 이상의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 원인이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듀크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목회자건강연구소(Clergy Health Initiative)가 노스캐롤라이나 연합감리교 목회자 1,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회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8.7%로 전국 평균인 5.5%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목회자는 13.5%로 나타났으며, 우울증과 불안을 동시에 경험한 목회자들도 전체의 7% 이상이었다.

앞서 남침례회 소속 라이프웨이 기독교연구소 소장인 톰 레이너(Thom Rainer) 박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활동, 이메일, 전화조사 등을 통해 진행한 200번의 상담을 통해서, 목회자

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비난 △분쟁 △가정 문제 △스트레스 △우울증 △소진 △성적 문제 △재정 문제로 꼽았다.

레이너 박사는 “목회자들을 향한 기대는 실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고, 수많은 교인들을 심방하며, 뛰어난 설교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리더십 전략을 만들고, 결혼식 및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며, 공동체 활동에도 참가해 주길 바란다. 많은 목회자들은 그러나 ‘아니오’라는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권한을 위임하는 데 서툴거나, 주변에 책임을 함께 나누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애슈빌에 위치한 목회 지도자들은 시티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역자가 탈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많은 이들이 교회의 책임과 별개로 그들의 시간을 갖기 위한 영역을 정해놓지 않은 데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교회 밖에서 이뤄지는 충분한 활동과 관계성 형성 부족이 꼽혔다. 목회자들은 항상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만 정작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것에는 인색했으며,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또한 전인격적인 발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강혜진 기자

“아무리 월드컵이라지만 이젠 너무 심해”

호주 게임업체 예수상 본딴 광고 풍선 논란



브라질의 예수상을 본따서 만든 풍선의 모습

호주의 한 게임업체가 브라질의 유명한 예수상(Christ the Redeemer statue)을 본따, 151피트(약46m)의 2014년 월드컵 홍보 풍선을 제작, 논란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한 관영 TV채널 역시 자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비슷한 광고를 내보냈다.

이 예수 풍선은 ‘#KeepTheFaith’라는 문구를 새긴 호주의 축구대표팀 옷을 입고 있으며, ‘스포츠벳(Sportsbet)’이라는 게임업체가 지난 13일 월드컵 개막식에 맞춰 멜버른 상공에 띄웠다.

호주교회도박대책전담팀(Australian Churches Gambling Taskforce)을 맡고 있는 코스텔로(Costello) 목사는 호주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이 예수상은 리우데자네이루의 뛰어난 조각상 중 하나다.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은 신앙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축구에 대해서도 열광적이다.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신앙적 상징물을 단순히 상업적 광고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로서 축구는 이 점에 대해 신중해야 하고, 특별히 이 같은 형식의 광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이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벳 측은 “이번 광고는 호주의 축구대표팀 사커루(Socceroos)에 지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Socceroos를 지지하는 것이 교만한 일인가? 우리가 교만했다면 ‘#KeepTheFaith’라는 문구 대신 예수님의 손에 월드컵 우승트로피를 안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포츠벳 홍보 담당자인 숀 앤더슨(Shaun Anderson)은 “우리는 정직해지자. 호주 축구팀이 상대방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중재(도움)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사커루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나 피터 라이언(Peter Ryan) 부수장은 “이 광고는 무례하다. 예수 풍선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가디언리버티 보이시(Guardian Liberty Voice)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홍보 캠페인은 전체 기독교 인구에 대해 의도적이고, 완전히 공격적”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의 가톨릭교회 역시 이탈리아 TV 채널인 라이 이탈리아(Rai Italia)가 제작한 예수상 광고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예수상은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의 의상을 입고 있다. 텔레그래프(Telegraph)는 가톨릭 리우 교구에서 TV 채널을 상대로 1010만 달러의 소송(저작권 위반 혐의)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강혜진 기자

나이지리아, 월드컵 시청 중 자살 폭탄 테러

사망자 14명 · 부상자 26명 확인, 대부분 젊은 남성과 어린이



테러로 인해 파괴된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지난 18일 밤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베 주(州) 수도인 다마투루의 TV 관람센터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경찰은 피해자들이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던 중이었으며, 테러는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은 “폭발물이 설치된 삼륜 택시가 TV 관람센터 안으로 들어왔으며, 브라질과 멕시코 간 경기 중계가 시작된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병원 관계자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 남성과 어린이들”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4명, 부상자가 26명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보코

하람의 추가 공격이 의심됨에 따라 의료진을 비롯한 구조대원들이 선봉리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월드컵 당시에도 소말리아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 회원들이 우간다의 거리에서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테러를 일으켜 74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대형TV로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는 야외 관람센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보코하람의 집중 표적이 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폐쇄됐다. 보코하람 회원 20여명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보르노주 아스키라 우마 지역의 크리스천 마을인 다쿠에서 총기를 난사해, 15명이 죽고 교회와 시장 및 집들이 불에 탔다. 이들은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인구를 몰아내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강혜진 기자

시형선고 받은 수단 기독교인 여성, 석방 후 또 구금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수단 여성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공황에서 다시 구금됐다.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리암 예흐야 이브라힘(27)이 카르툼 공황에서 다시 구금됐다. 앞서 그녀는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교수형과 100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그녀의 석방을 위한 청원운동도 진행됐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녀는, 남편 및 두 자녀와 함께 출국하려다 하루 만에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받은 것이다.

수단 보안 당국 관계자는 마리암이 여행에 필요한 적합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녀의 남편 다니엘 와니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들은 체포된 것이 아니며, 수단 정부도 이들의 안전을 약속했다. 현재 미국 대사가 이들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료계 종사자(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 입 학 : 수시 입학 상담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 · 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June Special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New!



**(FULL OPTION)
ALL NEW
2015 GENESIS
SEDAN**

\$429 ^{+TAX}
36
Mon.

MSRP: \$55955 / SELL: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New!



**2014
HYUNDAI
SONATA GLS**

\$89 ^{+TAX}
36
Mon.

MSRP: \$22,350.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45,170
^{+FEES}

Stock# DU070328, DU069919
MSRP: \$60,170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